



2020년 10월 18일(제1004호)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진교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사랑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은 선교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요?

사실 선교라는 말을 떠올리면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흔히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두 선교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가두 선교가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가두 선교를 바라보는 모습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떠올리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선교는 가두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분, 계급 차이 없이 한 형제자매로 지냈고, 먹을 것도 없는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돕고 지냈습니다. 그런 배려와 나눔과 사랑의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아직도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선교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가두 선교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선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로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힘들어하는 용사들과 전우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또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전해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선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기(요이임) 신부  
충장(31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변호송

- 이사 2,1-5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로마 10,9-18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영 성 제 송

- 마태 28,16-20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홍낙민 루키



성인명: 홍낙민 루키 (洪樂敏 Luke)

신분: 양반, 지평, 순교자

활동연도: 1751-1801년

홍낙민(洪樂敏) 루키는 1751년에 충청도 예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와 한양으로 이주해 살았다. 1839년의 순교자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그의 아들이며, 1840년의 순교자 홍병주 베드로·홍영주 바오로 형제 성인과 1866년의 순교자 홍봉주 토마스는 그의 손자이다.

그에 앞서 홍 루카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한때는 가성직 제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한 적도 있었다. 이는 당시의 신자들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리와 교회법을 잘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행한 잘못이었다. 다행히 이러한 행위는 오래 가지 않았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난 뒤, 홍 루카는 임금의 명에 따라 천주교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였고,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재(齋)를 지키기도 하였다. 1794년 말 주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다음 해, 홍 루카는 성사 받을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을묘박해가 일어나 체포되자, 두려운 나머지 천주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천주교의 폐해는 홍수나 맹수보다 심하므로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 루카는 다시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1799년에 모친상을 당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주(神主)도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천주교를 멀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자마자, 홍 루카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두려운 나머지 처음부터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심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친 것은 옳다.”고 대답하였으며, 결코 동료들을 밀고하지 않았다.

혹독한 문초와 형벌이 계속되는 동안 홍 루카는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여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전에 보이지 않던 용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재판관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천주교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억지로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이를 멀리하였으니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천주교를 버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처럼 굳게 신앙을 증언한 홍낙민 루카는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 열심히 살았니?"

참,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늘 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머,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 상화이야기

## 상리지로 교회 입구

교회 출입문 위 공간인 틈과눔을 뿔뿔하게 채워 최후의 심판 장면을 조각한 작품으로, 중앙에 원형 모양의 만돌라 안에 천상의 도시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옥좌 및 발틀이 창문들이 있는 건물들임을 알 수 있다.

오명, 프랑스  
1120년~1132년경 제작



예수님을 둘러싼 만돌라는 4명의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있다. 예수님 오른쪽에는 천사가 저울을 들고 영혼의 무게를 재고 있는데, 악마가 천사를 방해하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며, 천사의 옷 뒤(다리 옆)로 숨어 있는 작은 영혼이 보인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신봉대 주세의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